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4 | 꽃, 누룩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시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시험 범위인 「꽃」과 「누룩」을 공부하다 보니 두 시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뭔가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우리 만들이 국어 실력이 이전보다는 는 것 같구나. ㅎㅎ
이육사의 「꽃」부터 한번 살펴볼까? 이 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형식적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니?



음, 일단 연마다 행의 개수가 4개로 똑같아요! 그리고 읽다 보면 3행에서 호흡이 조금씩 빨라지는 느낌이 들던데 맞나요?

정확해! 각 연에서 시행이 점층적으로 확장되면서 호흡이 빨라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그리고 4행에서 시적 화자의 의지를 단호한 어투와 내용으로 전하고 있지. 이에 따라 긴장이 가중되고 의식의 점층 효과를 거둘 수 있단다. 내용 면에서는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극한의 부정적 상황과 '빨강게 피어'나는 '꽃'의 이미지 대립을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 여기서 '꽃'은 강인한 생명력과 광복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부정적 의미의 시어와 긍정적 의미의 시어를 구분하여 꼭 알아두렴! 시어의 의미를 묻는 것은 물론, 유사한 의미의 시어가 있는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높은 확률로 출제될 것이란다.



아, 그래서 2연의 '제비 떼'도 단순히 새가 아니라 마침내 찾아올 긍정적인 미래를 형상화한 거군요!
그런데 「누룩」에서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감상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누룩」은 누룩을 의인화해서 민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란다. '알맞은 바람'이나 '좋은 물' 같은 외부 요인을 만나면 뜨겁게 끓어오르잖아? 이걸 고난 속에서도 서로 연대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민중의 힘을 비유한 거야.





아하! 4연에서 '죽음'이 '춤'이나 '기쁨'이 된다고 표현한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죽는 건 슬픈 건데 왜 기쁘다고 한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시의 핵심인 **역설적 표현**이란다. 누룩이 자신을 희생해서 맛 좋은 술을 만들어 내듯이, **개인의 희생이 공동체의 행복과 새로운 시대로 승화**된다는 점을 강조한 거지. 마지막에 '냄새 퍼지나니'라는 후각적 심상을 쓴 것도 **희망이 확산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야.



정리하자면, 「꽃」은 강인한 의지로 광복을 기다리는 화자의 기개가 느껴지고, 「누룩」은 희생과 연대를 통해 민주화의 새 날을 기다리는 민중의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4 | 꽃, 누룩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동방(우리나라)은 **하늘도 다 끝나고**(: 부정적 상황. 일제 강점기)

비 한 방울 나리잡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 희망. 현실 극복 의지. 강한 생명력. '꽃'은 부정적 현실과 대비되어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 주는 핵심 소재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설의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 대한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냄.)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영탄적 어조)

▶ 극한 상황에서 피어나는 꽃

북(北)쪽 **쓴도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자거려](: 자연의 섭리를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제비 때 까맣게 **날라오길**(상승의 이미지)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바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여**(‘약속’이 지켜질, 긍정적 현실이 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 영탄적 어조)

▶ 인고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를 기대함

한 바다 복판 **용솨음치는 곳**(역동적 이미지. 상승적 이미지)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광복된 조국.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화려하고 평화로운 상황이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에는

나비처럼 취하는(광복된 조국에서 느낄 기분) **회상(回想)의 무리**(광복된 조국에서 만나는 동료들)들이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꽃이 피어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쁨
- 이육사, 「꽃」

(나)

누룩(민중.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를 드러낸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의문형 중결어미를 통해 누룩의 속성을 제시함.)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발효되기 전 누룩의 모습. 민중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 부정적 현실에 무기력한 민중들의 모습 → 민중 혼자서는 세상을 바꾸기 힘들.)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해당 시구의 의미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관심 밖에 놓여 있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알맞은 **바람**(누룩이 발효하기 위한 조건. 민중을 각성하게 하는 요인)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촉각적 이미지)

그 사랑을 알겠느냐

▶ 민중의 더운 가슴(누룩의 사랑에 대한 인식)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누룩 끓는 소리. 민중의 고통)을 들었느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민중들을 핍박하던 부정적 현실) **칼벌**(민중의 희망과 의지,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 '칼벌'이 억압적인 독재 치하에 놓여 있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한다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은 알고 있으나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현실의 고통 속에서의 희망,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민주화. 탄압과 시련 속에서도 소중한 가치를 영원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가슴 울림**(누룩이 끓는 모습, 희망이 생겨나는 소리) 들었느냐

▶ 민중의 강인한 의지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누룩이 발효되는 시간, 현실의 고통을 견디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민중의 기대)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미래를 위한 자기희생) 보았느냐

▶ 누룩의 속 깊은 기다림

지가 죽어 **씩어 문드러져**(자기희생의 모습)

우리 고향 좋은 **물**(누룩의 변화를 촉구하는 존재) 만나면

등달아서(연대 의식)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희망, 긍정적 의미의 시어)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자기희생)을 알겠느냐]([]: 역설적 표현)

▶ 민중의 의연한 희생정신(미래를 위한 누룩의 희생 의지)

아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새로운 희망의 시대 도래)

냄새 퍼지나니(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후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함. 민중의 저항 의지 및 확산. 민주화의 기운 확산)

▶ 미래에 대한 희망(누룩에 대한 기대와 신뢰)

- 이성부, 「누룩」

(가)

핵심 정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의지적, 상징적, 저항적
- 주제: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
- 구성
 - 1연: 극한 상황에서 피어나는 꽃
 - 2연: 인고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를 기대함
 - 3연: 꽃이 피어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쁨
- 특징
 - 상징에 의한 암시적 표현이 나타남.
 - 자연 현상을 인간사에 적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 선경후정의 한시 구조 및 점층적 시상 전개가 나타남.
 - 극한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강한 의지를 강조함.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4 | 꽃, 누룩 기출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짙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갭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어

북(北)쪽 쓴도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자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라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바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어

한 바다 북판 용솨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나)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솨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가] 아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 이성부, 「누룩」

1. (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행의 개수가 연마다 반복되고 있다.
- ② 선경후정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③ 현실 극복의 의지를 시행의 반복으로 드러내었다.
- ④ 각 연에서 시행이 점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 ⑤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징적인 시어들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을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 ③ 극한 상황을 이겨내는 강인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각 연은 선경후정(先景後情)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⑤ 색채어를 사용하여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사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자연의 섭리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기대와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대립적인 이미지와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4. (가)의 주제를 고려할 때, 나머지 시어들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그때 ② 꽃 ③ 꽃 맹아리
- ④ 제비 떼 ⑤ 꽃성

고난도 5. <보기>를 통해 (가)를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육사의 시 세계는 일관되게 전개되어 왔다. 그의 시 정신을 정리하자면, 우선 그는 작품에 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투철한 고민과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자기화하여 확실한 의지로 정립하고, 광복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 ① ‘동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터전인 한반도를 의미한다.
- ② ‘비 한 방울 나리짙는’을 통해 시인이 식민지 현실을 생명이 부정되는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내 목숨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에서 시인이 시대의 문제 해결을 자기의 일로 내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작거려’는 순수한 마음속에서 싹트는 희망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은 ‘나’가 꿈꾸는 조국의 광복이 도래하였을 때의 삶을 누리게 될 미래의 우리들이다.

고난도 6.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가)의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 짚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②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③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 움짚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데, //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 핫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④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⑤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 유치환, 「바위」

7. ㉠가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며 기대하는 자세
- ② 시대에 맞서 끊임없이 대결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출
- ③ 쉬지 않고 나의 삶을 연장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 ④ 극한적인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나약함에 대한 반성
- ⑤ 목숨이 붙어 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절망적 인식

8.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고난도 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70년대 독재 체제가 공고해지던 시기에 민중들은 결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작가는 독재 치하의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갖은 탄압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존재로 민중들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염원하며 그들의 염원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등장하거나 환경이 조성되면 민중들은 그 염원을 이루기 위해 언제든지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존재로도 인식하였다.

- ①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는 민중들이 결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존재였음을 암시하는군.
- ② '칼별'은 억압적인 독재 치하에 놓여 있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군.
- ③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은 탄압과 시련 속에서도 소중한 가치를 염원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④ '좋은 물'은 민중의 편에서 민중의 소망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군.
- ⑤ '해 솟는 얼굴'은 민중들이 희생을 통해 이룩한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군.

10. (나)의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부정적인 현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화자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며 시상을 확산하고 있다.
- ③ 대상의 특징을 이용하여 희망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염세적인 태도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현실 극복의 의지는 드러나나, 이를 시행의 반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① 각 연은 모두 4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자연 현상을 먼저 제시한 뒤 화자의 신념과 정서를 노래하는 선경후정(先景後情)의 한시 구조를 취하고 있다.
- ④ 각 연에서 1행보다 2행이, 2행보다 3행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짐에 따라 호흡이 빨라지며 시상이 점층적으로 확장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⑤ ‘비 한 방울 나리짙는’의 부정적 이미지와 이를 뚫고 피어나는 ‘꽃’의 긍정적 이미지를 대립시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 정답 ②

자연을 통해서 현실의 상황과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연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꽃’이나 ‘꽃성’과 같은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비 한 방울 나리짙는 그때’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생명력을 통해 화자의 강한 의지를 강조한다.
- ④ 1~3행은 자연의 풍경을, 4행은 화자의 정서나 신념을 제시하는 선경후정의 구조가 나타난다.
- ⑤ ‘빨강게’, ‘까맣게’ 등의 색채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

3. 정답 ④

명령형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① ‘오히려’와 같은 부사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눈 속 깊이’에서 ‘제비 떼’가 돌아오는 ‘봄’을 기다리는 자연의 섭리와 계절의 변화를 활용하여, 조국 광복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와 같은 영탄

적 어조를 활용하여 밝은 미래가 온다는 확신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시에서는 ‘꽃’과 같은 상징적인 시어의 사용과 ‘비 한 방울 나리짙는 그때’,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등의 이미지 대립을 활용하여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4. 정답 ①

이 시에서 ‘꽃’, ‘꽃 맹아리’, ‘제비 떼’, ‘꽃성’은 모두 긍정적 이미지로 사용된 반면, 비 한 방울 나리짙는 ‘그때’는 식민지 현실의 조국을 빗대 표현한 부정적 의미의 시어로 사용되었다.

②, ③, ④, ⑤ 화자가 지향하는 긍정적인 공간의 시어이다.

5. 정답 ④

눈 속 깊은 곳에서 움작거리는 꽃 맹아리의 움직임은 암울한 식민지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의 희망을 향한 의지와 생명력을 나타낸다. ‘순수한 마음속’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동방’은 화자가 처한 현실적 배경이자 우리 민족의 터전인 한반도를 의미하는 시어로 적절하다.
- ② ‘비 한 방울 나리짙는 그때’는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르고 절박한 일제 강점기의 극한적 상황을 나타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은 시대의 비극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며, 이는 시대적 과제를 자신의 일로 내면화한 화자의 의지를 보여준다.
- ⑤ **[매력적인 오답]** ‘회상의 무리들’은 광복이 실현된 미래의 시점에서 고통스러웠던 현재를 함께 되돌아볼 미래의 우리 민족 혹은 동료들을 가정한 표현이다.

6. 정답 ④

Ⓐ는 비가 내리지 않아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오히려 꽃이 핀다는 역설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비극적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는, 극한 현실을 초극하려는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실 상황에 대한 역설적 인식과 현실 초극의 의지적 태도는 ④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매력적인 오답]**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을 초극하거나 희망적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임에 대한 예찬이 나타난다.
- ③ 다가오는 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겨울이 끝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바위'와 같은 초연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적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7. **[정답]** ②

극한적인 상황에 맞서 목숨을 바쳐 '쉬임' 없이 대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시구이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쟁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① **[매력적인 오답]** ㉔ 부분은 화자가 자신의 소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미래를 그리거나 기대하는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
- ③ 생명의 연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것을 뜻한다.
- ④ 화자는 극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 하며 나약함에 대한 반성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극한 상황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꽃이 핀다는 믿음을 통해 현실을 초극하고자 한다. 따라서 절망적 인식은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②

이 작품은 '지 혼자', '나자빠져 있다'와 같은 시어를 활용하여 '누룩'을 의인화하고 있다. '누룩'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고귀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민중을 의인화한 시어이다. 이를 통해 '민중의 희생과 현실 극복 의지'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① '~냐'와 같은 의문형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있지만, 동일한 시행 전체가 반복되지는 않는다.
- ③ 색채어의 활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대비보다는 누룩이 발효되어 술이 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상의 반전보다는 누룩이 삭고 끓어오르는 과정을 통해 민중의 저항 의지와 희망이 확산되는 모

습을 보여준다.

9. **[정답]** ②

'칼별'은 '혹한 속의 별'을 의미하는 시어로,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시대적 양심 혹은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를 상징한다. 따라서 ②의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억압적인 독재 치하에 놓여 있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하는 시어는 '엄동설한'이다.

- ① **[매력적인 오답]**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는 민중들이 하나로 결집하지 못한 채 소시민적인 무력함에 빠져 있던 상태를 암시한다.
- ③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은 가혹한 탄압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와 같은 소중한 가치를 염원하며 인내하는 민중의 모습을 드러낸다.
- ④ '좋은 물'은 누룩이 발효되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로, 민중이 각성하여 소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외부적 존재나 환경을 의미한다.
- ⑤ '해 솟는 얼굴'은 민중이 기꺼운 희생을 통해 이룩하게 될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0. **[정답]** ③

[가]는 누룩이 발효될 때의 특징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이다. 누룩이 끓어 냄새가 퍼지는 것을 바탕으로 민중의 저항 의지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부정적인 현실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닌, 화자가 기대하고 긍정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② 화자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 누룩이 뜨는 현상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누룩이 발효되는 희망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일상적 소재를 통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염세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아'라는 감탄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희망적 변화에 대한 감흥일 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적인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